

<두부가게 아저씨의 종소리>

‘딸랑~ 딸랑~ 딸랑~’

누구에게나 과거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먼발치에서 들려오는 기차 경적소리, 함박눈이 내리는 한겨울 저녁에 골목 한편에서 울려 퍼지는 목청 좋은 찹쌀떡 장수의 리듬감 있는 목소리, 언제나 기다려지는 학교 쉬는 시간 종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빵튀기 가게의 ‘빵이요~’ 소리…….

그 중에서도 나에게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매일 저녁 시간이면 어김없이 작은 트럭에 두부를 가득 싣고 동네 이곳저곳을 누비던 두부가게 아저씨의 종소리이다.

1993년 늦은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학교를 일찍 마치고 동네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다 보니 어느새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어둑해질 즈음 집에 들어가니 저녁 준비를 하던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셨다.

“저 앞에 두부아저씨 오셨으니까 두부 한 모 사오고, 오는 길에 계란도 사와.”

나는 오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받아 들고 집 앞 아파트 단지 도로 한쪽에 자리 잡고 있던 두부 트럭으로 향했다. 트럭 주변에는 종소리를 듣고 두부를 사러 오신 동네 아주머니들도 모여 계셨다. 아저씨는 수완이 좋아 동네에서 오랜 기간 장사를 하면서 어머니를 비롯한 동네 주민들과 집안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내가 심부름을 갈 때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아주시곤 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두부 하나 주세요,”

“길중이 왔구나. 잠깐만 기다려.”

때맞춰 물려든 손님에 아저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보였다. 두부 판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두부를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봉지에 넣어 건네주고 돈을 받아 주섬주섬 거스름돈을 계산하던 아저씨의 이마에는 늦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따끈따끈한 두부와 함께 거스름돈을 받은 후, 손님이 많아 거스름돈을 확인해 볼 겨를조차 없이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나섰다. 계란을 사러 슈퍼로 가

는 길에서야 한 손에 꼭 쥐고 있던 돈을 세어보았다.

오천 원을 내고 칠백 원짜리 두부를 샀으니 내 손에는 사천 삼백 원이 들려 있어야 할 터. 그런데 천 원짜리 지폐 사이에 오천 원짜리가 한 장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어두운 저녁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하여 급하게 돈을 꺼내다 보니 오천 원짜리가 섞여들어간 모양이었다. 난 뿔 듯이 기뻐다. 20여 년 전 오천 원이면 어린 아이에게는 정말 큰돈이었다. 순간 머릿속에는 그동안 갖고 싶어 문방구 앞에서 물끄러미 구경만 하던 프라모델, 고무동력기, 장난감 권총 등이 떠올랐다. 계란을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바로 집으로 뛰어가 어머니께 자랑했다.

“엄마! 나 오천 원 벌었어!”

어리둥절해 하시던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아무 말 없이 가스레인지 불을 끄시곤 내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간 곳은 방금 두부를 샀던 트럭이었다. 물려들었던 동네 아주머니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떠났고,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던 아저씨는 남은 두부를 마저 팔아보고자 설 새 없이 종을 울리고 계셨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많이 파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길중이 넌 방금 왔었는데 또 웬 일이야? 아, 혹시 두부가 이상이 있었나요?”

“애가 심부름을 시켰더니 거스름돈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왔지 뭐예요. 천 원짜리 중에 오천 원짜리가 들어있어서 돌려드리러 왔어요. 넌 돈을 받으면 바로바로 확인을 했어야지. 어서 사과드려.”

난 어머니 뒤에 숨어 쭈뼛쭈뼛 사과를 하였고, 자초지종을 듣고 난 아저씨는 크게 웃으시고는 괜찮다고 용돈 준 셈 치겠다하시며 한사코 받지 않으려 하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어코 돈을 돌려 드린 뒤에야 집으로 발길을 돌리셨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 어머니는 시무룩해 있던 내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돈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야. 네가 만약 아까 오천 원을 아무 말 없이 가졌다면 아저씨가 매일 땀 흘려 열심히 두부를 팔아서 번 돈을 빼앗는 게 되는 거란다. 떳떳하지 못한 돈을 썼을 때 네 마음은

편했을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렴.”

말씀을 마치신 후 어머니는 내 축 처진 어깨를 두드리며 주머니에서 오천 원을 꺼내 내 손에 쥐어 주셨다. 하지만 나는 한없이 부끄러워 한동안 어머니를 쳐다볼 수도, 그 돈을 쓸 수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 그 때의 일은 기억에서 희미해져 갔고, 국민학교 3학년이던 어린 아이는 어느새 성인이 되어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였다. 또한 오랜 준비 끝에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소방공무원에 합격하여 공직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소방서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다. 밤을 새워 큰 불을 꺼보기도 하고, 실종자를 찾아 온 산을 헤매며 돌아다니기도 하고, 집 나온 소떼를 외양간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내가 원했던 직장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웠고, 보잘 것 없는 작은 도움을 드린 분들이 정말 고맙다며 두 손을 꼭 잡아 주실 때면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참 잘 들어왔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던 여름날, 출동 방송이 들려왔다.

“○○1펌프, 별집제거 출동. ○○면 □□리 ◇◇모텔. 건물 2층 처마 밑에 큰 별집이 매달려 있는 상태.”

지난주에도 다녀왔던 곳이었다. 내가 근무하는 관할 지역은 지역 특성상 산지가 많아 별집이 자주 생기는 관계로 이렇게 갔던 곳을 또 가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익숙하게 보호복과 제거 장비를 챙기고 현장으로 출동해 보니, 별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위치도 제거하기 쉽지 않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살리고 팀장님의 조언을 얻어 가까스로 제거할 수 있었다. 한여름에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잔뜩 긴장한 채로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니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따가운 피부와 타는 목마름에 정신은 아득해져 갔다.

잠깐 쉬 후 ‘오늘도 한 건 했다’는 기쁨을 나누며 장비를 정리하던 그 때,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 전에도 없었는데 이놈의 별은 왜 이렇게 많은지 원……. 가면서 이거라도 드세요.”

라며 모텔 주인아주머니께서 드링크제 한 상자를 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

만 받겠다며 극구 거절하였지만, 너무나 미안해서 안 받으면 내가 더 불편하니 제발 받아 달라며 떠밀 듯이 건네고 뛰어 들어가시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고 귀소 길에 올랐다. 귀소 중 상자를 열어 보았더니 상자 안에는 드링크제와 함께 흰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다. 현금 10만원이었다. 잠시 망설이다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팀장님께 보고 드렸다. 팀장님은 차를 돌리라고 지시하셨고, 모텔 앞에 도착한 후 내게 말씀하셨다.

“직접 가서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돌려드리고 와.”

그 순간, 십여 년 전 어린 시절의 그 일이 떠올랐다. 비록 알고 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돈을 보는 순간 잠시 망설였던 것이 생각나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마 팀장님도 그 때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공직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소방 어린이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직접 돌려드리도록 지시하셨으리라.

나는 주인아주머니를 찾아가 음료와 봉투를 돌려드렸다.

“두 번씩이나 고생하셔서 냉면이나 한 그릇 하시라고 드린 건데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도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로서 사장님께선 이미 저희에게 대가를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별집이 또 생기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환하게 미소 짓는 아주머니를 뒤로 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 후로 지금까지 수년째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와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열이 펄펄 끓는 아기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하고 나오는 길에 아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황급히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시던 일, 화재가 났던 섬유공장 사장이 사무실로 찾아와 과일바구니를 건네던 일,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감지기를 설치해 드리러 갔을 때 “이거 얼마요?” 물으시며 주섬주섬 쌈짓돈을 쥐어주신 일, 잠시 현장을 떠나 계약부서의 물품구매 담당자로 근무하던 시절 모 업체 담당자가 계약을 따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려 한 일 등등....

하지만 나는 그럴 때 마다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고마운 마음에 주는 음료수 하나도 못 받느냐며 서운해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진심을 담아 설명을 드리면 다들 이해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과를 하시기도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뉴스에서는 연일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의 비리가 보도된다. 만일 조금만 잘못 생각한다면 ‘에이, 위엣 놈들은 저렇게 많이 해먹는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좀 받으면 어때?’ 라고 자기합리화를 했을 지도 모르겠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던가. 큰 비리는 아주 작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용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어린 시절 선불리 취하려 한 거스름돈 오천 원의 교훈이, 이를 떠올리게 하는 두부가게 아저씨의 종소리가 내가 나아갈 공직 생활 속 유혹의 순간마다 뚜렷한 경종이 되어줄 것이며 앞으로도 청렴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본다.